

Sumitomo, 신 산화방지제 생산!

大分に 500톤 설비 가동 예정 ... 수지황변 없어 수요처로부터 호평

Sumitomo Chemical(住友化学)은 Phenol & Phosphorus계 양 골격을 가진 최초의 단제형 플라스틱용 산화방지제 상용화에 나섰다.

大分공장에 500톤 설비를 건설하고 화학합성제품 부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003년 상반기에 플랜트 건설에 착수해 2004년 초 가동할 예정이다.

Sumitomo Chemical 제품은 판매개시 후 1년만에 100톤 이상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고, 2002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장시 수지 황변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Sumitomo는 Phenol & Acrylate계 등 다른 그레이트와 함께 일본 국내외의 시장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Sumitomo Chemical이 양산에 착수한 것은 'Sumilizer GP' 시리즈이다. 단제 첨가로 Phenol계의 변색성·제품표면의 백화, Phosphorus계의 악취·가수(加水)분해성 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저밀도 PE 필름 가공시 안정제 등에도 적합하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Sumitomo Chemical은 2년 후 400-500톤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大分공장에서 양산 플랜트 건설에 착수했다.

이밖에 분자구조 중 2개 골격을 가진 'Sumilizer G' 시리즈로 Phenol & Acrylate계 등도 발매해 일본 국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의약중간체 등의 위탁합성사업 등과 함께 화학합성제품 사업의 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수지용 산화방지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1차제인 Phenol계, Amino계와 1차제와 병용해 효과를 발휘하는 2차제인 Phosphorus계, Sulfur계로 나뉘는데 시장의 과반수는 Phenol계가 사용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5/14>